

중국 사신의 조선죽지사에 담긴 조선 인식

-동월(董越)·서진(徐振)·백준(柏蓀)의 작품을 중심으로-

박종훈*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중국 사신의 조선 관련 작품
3. 중국 사신의 조선 인식
4. 나가는 말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 부교수

[국문초록]

조선에 왔던 중국 사신의 조선 관련 기록을 통해 조선 인식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동월은 1488년, 서진은 18세기 중엽, 백준은 1844년 각각 조선에 사신으로 왔다 갔는데, 이때 조선 관련 작품을 남긴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의 역사 속에서 조선의 역사를 인식하고 있었다. 기자나 소정방, 서불은 조선의 역사이면서도 중국의 역사가 된다. 특히 기자를 전면에 내세워 조선에 끼친 중국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켰다. 또한 백준은 기사에서 벗어나 중국의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조선의 역사를 상기시켜, 조선의 역사에 끼친 중국의 영향을 확대 강화했다. 이는 조선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한 것으로, 현 조선 역시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당대 조선의 정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세 사신 모두 조선이 교화에 무젓었고 예악과 풍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평이 조선만의 노력이 아닌 중국의 지대한 영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논지를 내세웠다. 중국이 나라 세울 것을 허락한 일이나 청 태종의 일을 언급한 것이 바로 현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동월과 서진 및 백준의 조선 풍속 관련 작품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일이나 자유연애, 시첩(妻妾)을 서로 빼앗는 풍속, 감옥 같은 초가집 등 이들이 본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진의 작품에 대해서는 김윤식이 꼼꼼히 변증하여, 어느 정도 오인의 실상이 밝혀졌다. 하지만 밝혀진 실상이라는 것이 조선에서만 유효한 것이지, 결코 중국인의 전통적인 조선 인식을 바로잡지는 못했을 것이다. 동월이 언급한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송(宋)나라 때부터 중국에 전해진 조선 풍속이다. 동월은 스스로 자신이 사신 왔을 때에는 이미 이런 풍속이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언급이다. 백준의 조선 풍속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또한 중국의 전통적인 조선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주제어 : 조선죽지사(朝鮮竹枝詞), 동월(董越), 서진(徐振), 백준(柏蓂), 중국 사신, 조선 인식, 김윤식(金允植)

1. 들어가는 말

조선 후기 중국, 일본 등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었다.¹⁾ 이들 작품은 당대 조선의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당대 중국이나 일본의 실제 생활상을 재구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반면, 외국인이 바라본 조선의 역사와 풍속에 대한 보고인 ‘조선죽지사류’의 작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신하윤은 「서진 조선죽지사에 나타난 청인의 조선 인식」과²⁾ 「청대 풍토시에 나타난 조선 사회와 문화」라는³⁾ 논문을 통해 청대인의 조선 인식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이 두 편의 논문은 조선의 지리·역사·풍속·물산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있어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당대 청인들의 조선 인식에 대해서는 예각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양퇴뢰의 「서진의 조선죽지사에 나타난 실경의 풍격」⁴⁾ 역시 당대 조선의 실경에 대한 묘사에 집중되어 있어 조선 인식에 대해서는 첨예화하지 못했다.

조선에 온 중국 사신들의 기록은 『사조선록(使朝鮮錄)』이란 책에 그 전모가 담겨 있다.⁵⁾ 이 책에는 고려 때 사신 온 서경(徐兢) 이하 장광후(蔣光煦)·예겸(倪謙)·장녕(張寧)·동월(董越)·주지번(朱之蕃)·강일광(姜日廣)·아극돈(阿克敦)·백준(柏蔭)·괴령(魁齡)·사건충(馬建忠)·송례(崇禮) 등의 조선사행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조선 관련 죽지사류의 작품을 남긴 사신으로는 동월(董越, 1430~1502), 우통(尤侗, 1618~1704), 서진(徐振, ?~?), 백준(柏蔭, ?~1859)이 있다.⁶⁾

1) 그 대표적인 예로 박제가(朴齊家, 1750~1805), 조수삼(趙秀三, 1762~1849), 이상적(李尙迪, 1804~1865), 이유원(李裕元, 1814~1888), 김석준(金奭準, 1831~1915) 등을 들 수 있다.

2) 신하윤, 「徐振 『朝鮮竹枝詞』에 나타난 淸人の 朝鮮 인식」, 『중국문학』 52집, 한국 중국어문학회, 2007. 참조.

3) 신하윤, 「청대 풍토시에 나타난 조선 사회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학술제』 권14,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2006. 참조.

4) 양퇴뢰, 「서진의 조선죽지사에 나타난 실경의 풍격」, 『인문과학논집』 22집, 강남대학교 출판부, 2011. 참조.

5) 은몽하(殷夢霞)·정호(丁浩) 선편(選編), 『사조선록(使朝鮮錄)』, 북경도서관출판사(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동월은 1488년 조선에 사신으로 와, 조선의 지리·풍속·토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탐색이 이루어졌고 이를 「조선부(朝鮮賦)」에 담았다. 총 486구로, 구절마다 상세한 주석을 달아 놓았다.⁷⁾ 우통은 「외국 죽지사(外國竹枝詞)」에서 조선 관련 칠언절구 4수를 남겼는데, 1681년 12월 1일에 지은 것이라고 자서(自序)에서 밝혔다.⁸⁾ 조선의 역사는 물론 인물이나 풍속 등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⁹⁾ 서진은 18세기 중엽 조선에 사신 온 것으로 보인다. 이때 사행 길에 견문한 것을 「조선죽지사(朝鮮竹枝詞)」 40수에 담았고 각 작품에 주석을 달아 작품을 보충했다.¹⁰⁾ 백준은 1844년 정사(正使)로 조선에 온 인물이다. 자신의 여정을 『봉사조선역정일기(奉使朝鮮驛程日記)』에 담았는데, 그 속에 「조선죽지사(朝鮮竹枝詞)」 30수가 들어 있다. 당대 조선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고 조선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¹¹⁾

이들 중국 사신들 중 우통은 칠언절구 4수만을 남겨, 당대 조선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난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월과 서진 및 백준의 작품을 통해 조선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인식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¹²⁾ 또한 이들이 사신 왔던 당대 조선에 대한 인식 및 당대 풍속에 대

6) 이 중 우통과 서진의 조선 관련 작품은 왕신지(王愼之)·왕자금(王子今)이 집(輯)한 『청대해외죽지사(清代海外竹枝詞)』(북경대학출판사, 1994.)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했다.

7) 동월의 「조선부」에 대해서는 윤호진 역(譯)의 『조선부(朝鮮賦)』(까치, 1994.)와 申太永의 「明使 董越의 「朝鮮賦」에 나타난 朝鮮認識」(『한문학회』 10집, 우리한문학회, 2004.) 참조.

8) 박준원, 「清代 朝鮮竹枝詞 研究」, 『경성대학교 논문집』 19집 1권, 경성대학교, 1998. 145-146면 참조.

9) 우통의 작품에 대해서는 정생화, 「우통의 조선죽지사에 대하여」(『한국한문학회』 48권, 한국한문학회, 2011.) 참조.

10) 서진의 죽지사에 대해서는 박중훈의 「徐振의 「朝鮮竹枝詞」에 보이는 朝鮮 認識」(『은지논총』 29집, 은지학회, 2011.) 참조.

11) 백준의 죽지사에 대해서는 박중훈의 「清 柏菱의 「朝鮮竹枝詞」에 드러난 朝鮮 認識」(『한국언어문화』 4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참조.

12) 동월은 1488년, 서진은 18세기 중엽, 백준은 1844년 조선에 사신 왔다. 동월은 명대 인물이고 서진과 백준 사이에도 시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또한 각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에는 양국 간의 정치적 풍토도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본고에서는 중국 사신의 운문 기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들 세 사신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살펴게 되었는데, 시간의 간격, 정치적 풍토의 변화 등을 입체적으로

한 보고를 차례대로 살펴볼 것이다. 이들 작품이 철저하게 객관성을 담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시선을 통해 당대 조선에 대한 인식과 조선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조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국의 한국 인식의 전통적인 기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중국 사신의 조선 관련 작품

2.1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

1487년 명나라에서 효종(孝宗)이 즉위했고 효종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1488년 1월 조선에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때 동월이 정사(正使)로 조선에 왔다. 『흠정사고전서』 「사부(史部)」에는 동월의 작품은 사령운(謝靈運)의 「산거부(山居賦)」의 형식을 본뜬 것이라고 하면서, 『명사(明史)』 「조선전(朝鮮傳)」을 참고했으며, 사행이전에 이미 조선 관련 도경(圖經)을 살펴보았고 사행 당시에는 자신이 직접 본 것과 전해들은 것 및 조선의 풍속첩(風俗帖)을 보았으며 사행을 마치고 복명한 이후에는 조선 관련 전적(典籍)을 통해 변증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³⁾

「산거부」의 형식을 본떴다는 것은 사령운이 「산거부서」에서 말한 “수식을 없애고 소박함을 취한 것”이다.¹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담

살피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임을 밝힌다.

13) 『使朝鮮錄』 「朝鮮賦」 751-752면 “朝鮮賦一卷，明董越撰。越字尙矩，寧都人。成化己丑進士，官至南京工部尙書，諡文僖。孝宗卽位，越以右春坊右庶子兼翰林院侍講，同刑部給事中王敞，使朝鮮，因述所見聞，以作此賦。又用謝靈運山居賦例，自爲之註所言與明史朝鮮傳，皆合如其信而有徵非鑿空也。考越自正月出使，五月還朝，留其地者，僅一月有餘，而凡其土地之沿革風俗之變易，以及山川亭館人物畜產，無不詳錄。自序所謂得於傳聞周覽與彼國所具風俗帖者，恐不能如是之周匝，其亦奉使之始，預訪圖經，還朝以後，更徵典籍叅以耳目所及，以成是製乎。越有文僖集四十二卷，今未見其本。又別有使東日錄一卷，亦其往返所作詩文，不及此賦之典核，別本孤行，此一卷固已足矣。”

14) 사령운의 「산거부」에 대해서는 李翼熙의 「謝靈運 辭賦의 內容에 관한 考察」(『중국어학연구』 17집, 중국학연구회, 1977.) 참조.

하고 세밀하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사』 「조선전」이나 조선 관련 풍속첩¹⁵⁾ 및 도경(圖經)을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조선부」의 내용이 동월 개인만의 조선 인식이 아니라, 이전 중국인의 인식을 그대로 이어 받았음을 밝힌 대목이다.

동월의 「조선부」를 내용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¹⁶⁾

단락(구)	내 용	단락(구)	내 용
1~6	조선의 위치	213~230	조서 반포 풍경
7~16	조선의 팔도	231~240	조선 국왕의 말
17~20	조선의 개국	241~278	연희의 모습
21~46	조선의 풍속 개괄(風俗帖)	279~288	송별연
47~52	조선의 성곽	289~292	
53~58	의순에서 숙천까지의 풍경	293~302	성균관 모습
59~110	평양의 풍경 및 유물	303~314	한강의 풍경
111~130	대동강에서 개성까지의 풍경	315~332	한양의 생활 모습
131~148	개성의 풍경	333~350	평안도와 황해도의 풍경
149~160	임진강에서 한양까지의 풍경	351~386	개성과 한양의 풍경
161~166	한양 풍경	387~390	의복 및 가마 제도[風俗帖]
167~176	사신 환대 장면	391~406	조선의 풍속
177~186	백희(百戲)의 장면	407~478	조선의 산물
187~200	태평관에서 생활 모습	479~486	후기(後記)
201~212	궁실의 제도		

2.2 서진(徐振)의 「조선죽지사(朝鮮竹枝詞)」 40수

서진의 행적과 관련해 청(淸) 오성란(吳省蘭)의 「사회헌시초(四繪軒

15) 이 풍속첩은 사신을 접반한 당시 이조판서 허중(許琮, 1434~1494)이 준 것이다. 동월의 「조선부」 소주(小註)에 보인다.

16) 윤호진은 동월의 「조선부」를 운자에 따라 33단락으로 나누었고 신태영은 주제에 따라 25단락으로 나눈 바 있다.

詩鈔)』(『예해주진(藝海珠塵)』)에 “서진은 자가 백미이고 호는 사촌이며 강소 화정 사람이다. 강희 을유년(1705)에 거인이 되었다.[振字白眉, 號沙邨, 江蘇華亭人. 康熙乙酉科舉人.]”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로 보건대, 18세기 중엽에 조선에 사신으로 왔으며¹⁷⁾ 이때에 「조선죽지사」 40수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왕조실록이나 기타 조선 문인의 기록에서는 서진의 사행 목적이나 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데,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이 서진의 작품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김윤식은 1908년에 지은 「제평양전도병풍백일운(題平壤全圖屏風百一韻)」(『운양집(雲養集)』 권2)에서 서진의 작품 일부를 언급했고 「서서진죽지사후(書徐振竹枝詞後)」(『운양집』 권12)에서는 서진의 작품을 꼼꼼히 살피면서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서진의 작품에 대한 김윤식의 반론으로 보아, 서진이 언급한 당대 조선의 풍속 중 일부는 당대 조선의 실제 풍속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짙다. 서진 역시 동월의 「조선부」를 언급했는데, 동월의 작품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부 와전된 조선의 정보와 지식을 서진이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조선 인식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서진의 「조선죽지사」 40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¹⁸⁾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	압록강 도하	11	사신 영접	21	이별하는 여인	31	춤 솜씨
2	조선의 역사	12	남별궁 숙소	22	관료제도	32	백광훈·권필
3	기자묘	13	사신 접대	23	요리와 술	33	월산대군
4	평양의 산물	14	납청정 쾌재정	24	차, 인삼	34	이별 시
5	사신 영접	15	여염집 여인	25	의복	35	거사비
6	사신 영접	16	여인의 장식	26	조공 품목	36	필담 현장
7	연회 현장	17	연애 풍습	27	말[馬]	37	거리 풍경

17) 신하윤, 앞 논문, 161-163면 참조.

18) 표는 박종훈의 「徐振의 「朝鮮竹枝詞」에 보이는 朝鮮 認識」(『온지논총』 29집, 온지학회, 2011.) 160면에서 인용했다. 이하 서진의 작품과 관련된 내용은 위의 논문을 심분 수용했다.

8	조서 봉안	18	한양의 봄놀이	28	인가와 시장	38	삼전도비
9	사신 영접	19	서옥(婿屋)제도	29	전라도	39	한양 조감
10	사신 영접	20	쌍륙(雙陸)놀이	30	연등 행사	40	장대놀이

2.3 백준(柏蓀)의 「조선죽지사(朝鮮竹枝詞)」 30수

1843년 효현왕후(孝顯王后)가 승하하자, 청나라는 이듬해에 유제(諭祭)를 위해 사신을 파견했는데, 백준이 이때 정사(正使)로 조선에 오게 되었다. 조선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이때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조선죽지사」 30수에 담았다.¹⁹⁾

백준은 「조선죽지사」 30수를 짓게 된 연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화정(華亭) 서진의 『산회당시집』 안에 「조선죽지사」 40수가 있는데, 묘사한 것이 섬세하고 치밀하다. 간혹 옛날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있을 것이니, 이를 참고해 보면 그 대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백준은 사신으로 조선에 오기 전에 이미 서진의 작품을 보았다고 직접 언급했는데, 서진의 작품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음을 감지할 수 있다. 백준이 작품을 지은 시기에 대해서는 차비관(差備官)이었던 조선의 이상적(李尙迪)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백준과 이상적이 수창한 작품이 『봉사조선역정일기(奉使朝鮮驛程日記)』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백준 자신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백준이 사신으로 조선에 머물면서 지은 것이 이 거듭 확인된다.²¹⁾

백준의 「조선죽지사」 30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²²⁾

-
- 19) 백준의 사신 일정에 대해서는 구범진의 「19세기 전반 淸人の 朝鮮使行」(『史林』 22호, 수선사학회, 2004.) 참조.
- 20) “華亭徐白眉振山輝堂詩集有朝鮮竹枝詞四十首，摹寫工緻，間有今昔不同處，參而觀之，可以得其大略矣。” 王愼之王子今 輯，『清代海外竹枝詞』(北京大學出版社, 1994.) 79면.
- 21) 박중훈의 「淸 柏蓀의 「朝鮮竹枝詞」에 드러난 朝鮮 認識」(『한국언어문화』 4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237면 각주 18번에 상세한 내용이 보인다.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1	경기도	11	조선의 현 정세	21	주거의 일용 기물
2	평안도	12	붓과 종이 및 풍류	22	거마 제도
3	황해도	13	조선의 선비	23	사신 영접
4	충청도	14	기녀와 아이	24	조선의 요리 솜씨
5	전라도	15	인삼의 독점	25	사신 행차
6	경상도	16	조선의 목화	26	말 끄는 노비
7	강원도	17	금과 은	27	길가 풍경
8	함경도	18	청동 기물	28	장승과 사당
9	신라의 민속	19	주거의 모습	29	여인의 절개
10	조선의 교화	20	가옥의 생활 모습	30	조선의 밀랍

동월과 서진 및 백준의 작품은 비록 당대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당대 조선의 정세나 풍속을 일정 정도 반영한 것이다. 조선의 역사나 현 정세 및 조선의 풍속에 대한 언급은 중국의 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일정 정도 담고 있기에 각 작품을 상호 검토한다면, 전통적인 조선 인식과 그러한 인식의 변모양상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중국 사신의 조선 인식

3.1 조선의 역사에 대한 인식

중국 사신의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조선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인식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에, 이를 통해 조선 역사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인식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동월의 인식부터 살펴보겠다.

22) 표는 박종훈의 앞 논문, 237면에서 인용했다. 이하 백준의 작품과 관련된 내용은 위의 논문을 십분 수용했다.

동쪽에 기자의 사당 있고	東有箕祠
예에 따라 나무로 신주 설치하고서	禮設木主
‘조선후대시조’라 써 있구나.	題曰朝鮮後代始祖
단군을 존송하는 건	蓋尊檀君
나라 세우고 땅을 열었기 때문이나	爲其建邦啓土
기자가 계세전서한 것 마땅하네.	宜以箕子爲其繼世傳緒也
기자묘는 토산에 있는데	墓在兔山
성의 북서쪽이네.	維城乾隅
두 개의 석상이 있는데	有兩翁仲
당나라의 복장 같구나.	如唐巾裾
점점이 이끼가 끼어 있어	點以爛斑之苔蘚
마치 비단 무늬 옷 입을 듯하네.	如衣錦繡之文襦
꿇어앉아 쪼 먹이는 석양 좌우에 있고	左右列以跪乳之石羊
머리 쳐든 귀부 위에 비갈 있네.	碑碣馱以昂首之龜趺
둥근 정자 지어 절하는 자리 만들었고	爲圓亭以設拜位
돌무더기로 뜰의 가장자리를 만들었네.	累亂石以爲庭除
이는 보본 하려는 뜻 융성하지만	此則其報本之意雖隆
의식 갖춘 예의는 소홀하네.	而備物之禮亦疎也

소주(小註)에서 “단군이 요임금 갑진년에 이곳에서 나라를 세웠다. 뒤에 구월산으로 들어갔는데, 생애를 마친 때는 알 수 없다. 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사당을 세운 것은 단군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지금 단군 사당은 기자의 사당 동편에 있다. 그 신주에는 ‘조선시조 단군위’라 쓰여 있다.[檀君帝堯甲辰年，開國于此，後入九月山，不知所終。國人世立廟祀之者，以其初開國也。今廟在箕子祀東。有木主，題曰朝鮮始祖檀君位.]”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단군이 나라를 세웠고 그 왕통을 기자가 이어받았기에, 기자의 신위를 ‘조선후대시조’라 했다는 것이다.

단국의 개국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 왕통을 이어받은 기자와 기자묘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결국 기자에 대한 칭송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마지막 구절에서 기자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뜻이야 융성하지만, 그 예는 소홀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동월은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묘와 관련해 3장의 사(辭)를 남

긴 바 있다. 이 작품에서도 덕으로 다스렸던 기자를 칭송하면서 기자묘의 봉분을 더 높여야 하며, 기자의 유풍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²³⁾ 이는 기자의 유풍이 제대로 전승되지 않는 당대 조선에 대해 질타이다. 기자에 대한 칭송과 기자의 전통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조선에 대한 질타는 결국 ‘기자조선’, 곧 역사적으로 조선이 중국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월은 조선의 국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황해도에 있는 성불령(成佛嶺)을 언급한 바 있다. 원나라 때에는 이곳을 국경으로 삼았으니, 압록강 동쪽에서 평양까지가 모두 중국 땅인데, 이 지역을 조선에게 주었기에, 조선은 중국에 공손한 예를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²⁴⁾ 또한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중국에 사신을 보내 국호(國號) 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에서 ‘조선’으로 고치도록 명한 일을 소주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²⁵⁾

이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조선의 역사를 살핀 것으로, 조선의 역사에 중국이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부각시킨 대목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진에게서도 확인된다.

23) 『新增東國輿地勝覽』平安道條 “董越辭序，墓在平壤城之西北隅。予自東國歸取道展拜時，風雨淒迷，不覺使人有泫然意。蓋秉彝好德，所發非勉強也。因爲辭三章，以弔云。‘雲冥冥兮樹陰，雨濛濛兮山深。憩驂駢兮中路，瞻埋玉兮遙岑。石粼粼兮苔蘚侵，一瞻拜兮泪沾襟。慨斯情兮曷以，不少間兮古今，吁嗟不死兮維人之心。’屹屹兮幽宮，胡爲兮自東。肇我封兮周武，不我好兮狡童。顧瞻遺墟兮禾黍芃芃，沾巧殊方兮一德同風。流千百世惠伊誰之功，吁嗟三尺兮封土宜崇。’敲坎坎兮笛聲悠悠，酒欣欣兮更進肴羞。東人報祀兮不爽春秋，冀神來流兮慰我夷猶。戒我東人兮勿翦松楸，留此美蔭兮永蔽斯丘，吁嗟此外兮亦又何求。”

24) 董越，「朝鮮賦」“成佛雄關棄石磊磊，北接慈悲南臨渤海。在前元則畫此爲界，至國朝乃示以無外也。”小註“成佛嶺，北枕山，南枕海，山巔嶺晚，高出雲表。一關口，棄舊時所伐營城方石數堆。詢之一通事，云其北卽慈悲嶺。元時畫此爲界，此卽其關口。若然則自鴨綠江東抵平壤，皆爲內地，而朝鮮所統之八道，已去其一道餘矣。我聖祖則盡以畀之，宜其恭順秉禮，視古有間也。嶺屬黃州。”

25) 董越，「朝鮮賦」“蓋王氏王此者，踰四百年。至恭讓昏迷，始權知國事於李氏，而名高麗統此者，易三四姓。及李氏得國，乃請復舊號於朝鮮也。”小註“本朝洪武二十五年，高麗國王王瑤，昏迷多殺失衆心。國人乃共推門下侍郎李世桂，權知國事，遣其國知密直司事趙胖來請命。後成桂更名旦，且以易國號上請。上曰，東土之號，惟朝鮮，最美，且最久，詔改曰朝鮮。旣得命，遂遷都今漢城府，以此爲留都云。”

위만이 동으로 와 은사를 옮겼는데	衛滿東奔殷祀遷
고구려에 위만조선 사람 섞여 있었지.	句麗部落溷朝鮮
왕손들은 부질없이 선우씨에 대해 말하나	王孫空說鮮于氏
맥수의 황폐한 성엔 세월만 흘렀다네.	麥秀荒城年復年(2)

평양성 서편 기자의 무덤	平壤城西箕子墳
기울어진 석마 찬 구름 속에 있어라.	敲斜石馬臥寒雲
아이들 흥망의 한 관심도 없이	蠻兒不管興亡恨
남은 비 가리키며 옛 임금이라 하네.	猶指殘碑說故君(3)

조선의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첫 번째 작품에서 서진은 소주를 통해 위만조선, 기자, 기자의 후손인 선우씨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²⁶⁾ 서진이 『한서』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선에 대한 역사 인식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전통적인 조선 인식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의미이다. 이어 기자의 「맥수가(麥秀歌)」와 선우씨를 언급하면서, 후손들이 쇠미해진 것을 탄식했는데, 이 역시 중국의 영향력을 부각시키면서 유풍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조선을 질타한 것이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평양의 토산의 있는 기자묘를 언급했다. 쇠락한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앞서 살핀 것처럼 기자의 유풍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현 조선을 질타하려는 의도가 십분 담겼다.

서진보다 100여 년 뒤에 조선에 사신 온 백준은 기자에서 벗어나 중국과 관련 있는 조선의 다양한 역사를 소개하면서, 조선 역사에 미친 중국의 영향을 확대 강화시켜 나갔다.

소정방의 평제비 예로부터 유명하고	蘇定方碑舊有名
남부여가 바로 충칭이라네.	南扶餘國是忠淸
난간에서 서쪽 보니 바다 같은 은혜인지라	憑欄西望恩如海
경영투라는 높은 누대 그곳에 있다네.	合有高樓號慶迎(4)

26) 小註 “漢書，燕人衛滿亡命入朝鮮，逐朝鮮王準，走海中，自立爲王。漢武元封四年伐之，殺其孫右渠，分其地爲樂浪元菟等四郡。後爲高句麗竊據，仍襲故號。今雖數易姓，尙其遺類。箕子之後，便姓鮮于，猶有存者，然寢衰無聞人矣。”

마한의 옛 나라 땅이 바로 전라이니	馬韓舊國是全羅
삼성혈에는 아직도 양을나가 전해지네.	古穴猶傳良乙那
한라산 주변을 방문해 본다면	試向漢拏山下訪
푸른 옷 처녀의 자손들 많으리라.	青衣處女子孫多(5)

첫 번째 작품은 충청도의 역사와 관련된 백준의 작품이다. 1구의 ‘평제비’는 정립사지 5층 석탑이다.²⁷⁾ 백준은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을 통해 충청도 역사를 서술했다. 이 역시 중국과 관련된 조선의 역사이다. 신라를 도와 백제를 멸망시킨 당(唐)나라의 은혜를 3구에서는 바다 같다고 언급했는데, 결국 현 조선이 있기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있었다는 논지이다.

두 번째 작품은 제주도와 관련된 백준의 작품이다. 3,4구에서는 진시황의 명으로 선남선녀를 이끌고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에 왔던 서불에 대해 언급했다.²⁸⁾ 4구에서 말한 ‘칭의처녀’가 서불이 데리고 왔던 선녀라고 했다. 백준은 서불이라는 중국 역사 인물을 등장시켜, 중국의 역사 속에서 제주도를 바라보고 존재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이국 관련 작품에서 타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자국과의 관련성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동월이나 서진처럼 중국 사신들은 『명사』나 『한서』 등에 담긴 조선에 대한 정보를 익히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조선 인식의 기저로 작용했다. 그러한 이유로 조선 역사에 대한 인식은 중국 역사의 큰 틀 속에서만 존재 가치가 부여된 것이다. 결국 기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은 자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된다. 백준은 부여의 평제비 및 제주도 관련 언급을 통해 조선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영향을 상기시키면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확대 강화시켰다. 중국이 조선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니, 조선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대국의 자부심과 우월의식이 작품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27)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탑신에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이라 새겨 놓았기에 ‘평제비’라고도 부른다.

28) 제주도의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차(徐福過此)”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서불과 관련된 전설이다.

3.2. 조선의 현 정세에 대한 인식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에 온 중국 사신들은 조선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 중국의 역사를 상기시켰다. 이러한 인식은 현 조선을 태평성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물론 현 조선의 태평성대가 중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언급이다.

너비는 2천 리, 길이는 너비의 배	其袤也道里二千延則加倍
옛날 서너 나라였는데 지금은 오직 하나.	視古也國封三四今則獨存
그 나라가 앞 시대 전철을 밟지 않은 것은	蓋唯不蹈前人之覆轍
밝은 시대의 깊은 은혜 입었기 때문이다.	所以獨蒙昭代之深恩也
조서로 나라 세울 것 허락하여	詔許建邦
스스로 성교를 이루었다.	自爲聲教

동월이 현 조선의 정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조선의 팔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조선의 전체적인 넓이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과거에는 신라·백제·탐라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조선이 이를 통일했다는 것이다.²⁹⁾ 서너 나라로 분열되었던 것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앞 시대 사람들의 잘못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중국의 깊은 은혜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아예 중국이 나라 세울 것을 허락하여 조선이 성교(聲教)를 이룰 수 있었다고 단언했다. 이 구절의 소주에서도 중국이 조서를 내려 즉위할 것을 허락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다.³⁰⁾

동월은 현 조선이 성교를 이루어 잘 다스려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면에는 중국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논지이다. 이러한 조선의 현 정세에 대한 인식은 서진의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공덕비 세워 선황의 덕 칭송하니	豐碑功德頌先皇
-------------------	---------

29) 小註 “新羅百濟耽羅，今皆爲所有。”

30) 小註 “本朝洪武二年，高麗國王王顥，表賀卽位，詔許自爲聲教，賜以龜紐金印。”

옥 같은 기이한 돌 눈부시게 빛나네.	異石琅琅爛有光
화려한 계단, 옥난간, 붉게 칠한 벽	錦砌玉闌紅粉壁
이곳 와서 줄 지어 절하고 향을 피우네.	到來羅拜一焚香(38)

‘삼전도비(三田渡碑)’를 소재로 당대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묘사한 작품이다.³¹⁾ 서진의 언급에서 확인되듯, 서진은 삼전도비를 청이 조선에 덕을 베풀어 편안하게 한 결과물로 받아들였다. 2구에서 삼전도비가 ‘눈부시게 빛난다’는 표현 역시 조선을 덕으로 다스린 청에 대한 공적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서진은 당대 조선이 예악과 풍류로 잘 다스려지고 있다고 받아들였지만,³²⁾ 그 이면에는 중국의 지속적인 교화 같은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백준도 조선의 당대 정세를 보는 인식이 동월이나 서진과 대동소이하다.

나무 장승은 수염 눈썹 선명하고	鬚眉畢現木雕翁
장정과 단정에는 이정표 있네.	長短亭邊記里工
용머리의 화표주가 있는데	更有龍頭華表柱
마을에는 각기 효렴공 있어라.	村中住箇孝廉公(28)

수백 년 이래 왕의 교화 누리면서	數百年來紀享王
요동의 번복과 일찍이 사신 왕래했지.	遼東藩服早梯航
공손하고 삼감 드러내기 부족하여	款闕未足昭恭謹
후원에 오히려 충순당을 지었다지.	後苑猶顏忠順堂(10)

첫 번째 작품은 장승과 사당을 통해 조선의 당대 정세를 언급한 것이다. 1,2구에서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장승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3,4구는 효행을 기린 정려문이나 청렴한 관리를 칭송하기 위해 세운 사당과 관련된 언급이다. 백준은 마을마다 있는 정려문이나 사당

31) 이 작품의 소주에서는 石明如鏡, 俗謂透靈碑. 太宗文皇帝, 嘗以德綏朝鮮, 其君臣感化, 勒石漢山下, 顏曰功德碑. 作亭護之, 時勤啓閉焉.”라고 한 바 있다.

32) 徐振, 「朝鮮竹枝詞」(35) “殊方官長亦何爲, 禮樂流風洵可追. 往往經過山郭外, 野華紅覆去思碑.”

을 통해, 당대 조선이 교화에 무젓어 잘 다스려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조선에 끼친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1,2구에서는 조선이 수백 년 동안 왕의 교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중국과의 끊임없는 사신 왕래 때문이니, 결국 중국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3,4구에서는 경복궁 후원의 ‘충순당(忠順堂)’을 언급하면서, 조선과 청 사이에 ‘충순’이란 의미를 끼워놓았다. 결국 현 조선이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지속적인 영향 때문이니, 중국에 충순해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동월이나 서진 및 백준은 조선의 당대 정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이 성교를 이루었고 예악과 풍류로 잘 다스려지고 있으며, 백성은 교화에 무젓어 있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예찬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의 당대 상황이 조선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다스림의 교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중국 사신들은 받아들였다. 어찌 보면 대국의 사신이 자국의 영향 하에 있는 변국에 사신가면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3.3. 당대 풍속에 대한 인식

이국 관련 작품에서 당대 풍속에 대한 언급은 철저하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국의 풍속을 바라보는 시선 뒤에는 타국에 대한 선입견과 자국의 문화와 우열을 가리는 비교의 시선이 존재하기에, 일정 정도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작품을 통해 당대 풍속의 일단과 이를 바라보는 타국의 전통적인 인식을 들여다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동월은 당대 중국과 다른 조선의 효에 대해서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여든 노인이 있으면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부모가 죽은 후 삼년상을 치루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³³⁾ 조선의 풍속 중 기자의 유풍을 이은 제사 풍속에 대해서는 칭송

33) 董越, 「朝鮮賦」 “國有八十之老, 則男女皆賜燕, 以覃其恩.” 小註 “每歲季秋, 王燕八十之老人於殿, 妃燕八十婦人於宮.” “子有三年之喪, 雖奴僕亦許行, 以成其孝.”

하면서, 중국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본받은 것이라고 한 바 있다.³⁴⁾ 기자의 유평이 남아 있는 풍속에 대해 말하면서 자국의 우월의식을 은연 중 드러낸 셈이다. 이는 앞서 동월의 역사 인식에서 살핀 것처럼 ‘기자조선’의 인식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간에 말은 통하지 않지만, 사신을 영접하는 연희의 마당에서 행해지는 예의를 보고서 한결같이 중국의 것을 따르고 있다고 한 바 있다.³⁵⁾ 이 역시 조선이 중국의 예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으로, 자국의 우월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기자의 유평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중국의 예의를 본받은 조선의 풍속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시선을 두었지만, 그 밖의 조선 풍속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로 그 실상만을 언급했다.

가난한 집의 벽은 대로 엮되	貧壁編籬
새끼줄로 엮어서 견고하게 했다.	索綯以完
그 위는 띠풀로 이었으며	其上則覆以茅茨
그 구멍은 진흙으로 막았다.	其空則塞以泥丸
가시나무가 처마 끝까지 나온 집도 있고	有荊棘反出簷端者
건물이 겨우 둥근 소반만 한 집도 있다.	有棟宇僅如困盤者
봉황이 천길 높이 날기엔 부족하나	此比鳳凰雖不足千仞之舉
뱀새가 가지 하나에 편안히 기댈 수 있네.	而視鷦鷯亦可託一枝之安也

대와 새끼줄, 띠풀과 진흙으로 만든 조선의 가옥을 묘사한 대목이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봉황이 깃들 수는 없고, 다만 뱀새나 살 수 있을 지경이었다고 하면서 여과 없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었다.

동월은 아예 외방(外方)의 특이한 풍속으로 굳이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논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³⁶⁾ 조선의 풍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

小註 “國俗喪必三年，且尙廬墓。奴僕例許行百日之喪，有願行三年者，亦聽。”

34) 董越, 「朝鮮賦」 “大夫乃祭三代，士庶則止祖考。此皆自箕子而流其風韻，而亦視中國爲之則倣也。”

35) 董越, 「朝鮮賦」 “雖音聲之不可通，而禮儀亦在所取。” 小註 “禮一準於華，加三上香三叩頭，山呼時，則侍衛皆拱手應。”

36) 董越, 「朝鮮賦」 “此皆出殊方異俗，而不必深考細論也。”

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또한 용추폭포(龍湫瀑布)와 관련해 용의 비늘을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가져다가 보여주겠다는 조선 통사(通事)의 말에, 동월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여겨 그만두게 한 일화가 소주에 전한다.³⁷⁾ 이는 조선에 전해지는 신화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부정적인 인식의 일단이다.

동월의 「조선부」에 조선 풍속 관련 구절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탐문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접반사 허종이 준 조선 관련 풍속첩의 내용을 충실히 시화(詩化)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동월 자신의 언급처럼 조선 풍속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논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시내에서 여자가 남자와 같이 목욕하고	若夫所謂川浴同男
역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 과부.	郵役皆孀
처음에 듣고서는 매우 놀랐지만	始則甚駭於傳聞
지금은 이미 고친 줄을 알았다.	今則乃知已更張
어찌 성스러운 교화에 젖은 곳인데	豈亦以聖化之所沾濡
넓은 한수 건널 수 없다는 것과 같겠는가.	有如漢廣之不可方也歟

당대 조선의 풍속에 대해 읊은 대목이다. 소주에서 “내가 그 나라에 사신으로 가기 전에 모두들 전하기를, ‘그 나라의 풍속은 과부들이 관역(館驛)에서 일을 본다.’라 하기에, 내가 그 추잡한 것을 싫어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고을의 관리들이고, 아낙네들은 역 밖의 별실에서 밥 짓는 일만을 했다. 서로 전하기를, ‘그런 풍속은 경태(景泰) 연간에 국왕 이유(李瑀)가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에 변했다.’라 했는데, 이는 요동의 부총병(副總兵) 한빈(韓斌)이 한 말이다. 시내에서 남녀가 같이 목욕한다는 사실도 옛날 책에 나오지만, 이것 또한 지금은 변했다.[予未使其國時, 皆傳其俗以孀婦供事館驛, 予甚惡其瀆. 比至則見, 凡來供事者, 皆州縣官吏, 婦人則執爨於驛外之別

37) 董越, 「朝鮮賦」“螿神物於靈湫, 掛瀑布於長川.” 小註 “山頂有龍湫瀑布. 相傳, 王氏都此時, 遇旱, 王自往禱, 不應. 有道術者, 檄龍, 出水而啓. 王杖之去其數鱗, 今鱗仍收其國庫中. 通事李義開城人, 嘗爲予道此, 且欲啓王出鱗予觀. 余以爲無益, 遂止之.”

室. 相傳此俗自景泰中其國王瑀襲封以後變之, 遼東韓副總兵斌所談也. 川浴事出舊志, 今亦變.]”라고 부기했다.

소주에서 말한 ‘옛날 기록[舊志]’이란 고려 때 사신 왔던 서궁(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서궁은 「잡속(雜俗)」편에서 남녀가 함께 개울에서 목욕하는 풍속이 있는데, 이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³⁸⁾ 이러한 기록이 후대에 그대로 전승되면서 조선에 여전히 이와 같은 풍속이 있을 것이라고 동월이 예단한 것이다.

동월 역시 조선 풍속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는 갖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전해오는 조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18세기 중엽에 조선에 사신 온 서진에게서도 이러한 경향이 보인다. 서진 역시 이전부터 내려온 조선 풍속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담았는데, 구한말 김윤식(金允植)이 이에 대해 반론한 것이 있다.

성 밖 봄 산에 미인들이 즐지어 가는데	城外春山翠黛長
누 집 처자인지 붉은 비단주머니 매었구나.	誰家年少紫羅囊
계집아가야 나지막이 ‘만누이’를 부르며	小鬟低喚鬢奴衛
‘이 사람만큼 잘생긴 이 없다’ 하네.	波峭無如伊薩郎(17)

조선의 연애 풍속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서진의 작품이다. 서진은 이 작품의 소주에서 “봄날 남녀가 산에서 쫓고 쫓기는 놀이를 하다가 서로 마음에 들면 결혼한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여성을 부를 때 ‘만누니[鬢奴衛]’라고 부르며 ‘이(伊)’는 ‘이[此]’라는 뜻이고, ‘살랑(薩郎)’은 ‘사람[人]’이라는 뜻이니 곧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春日男女遊山競逐爲戲, 相悅卽婚. 稱姊曰鬢奴衛. 伊, 此也, 薩郎, 人也, 猶言此人也.]”라고 언급한 바 있다.

38)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권23 「雜俗」 “舊史載高麗, 其俗皆潔淨, 至今猶然. 每笑中國人多垢膩, 故晨起必先沐浴, 而后後出戶. 夏月日再浴, 多在溪流中, 男女無別, 悉委衣冠於岸, 而沿流褻露, 不以爲怪.”(殷夢霞·丁浩 選編, 『使朝鮮錄』上,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185면 참조.)

서진의 언급을 통해 보면, 당대 자유연애의 결혼 풍습이 조선에 만연해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김윤식은 서진의 이 작품에 대해 『명사』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당대 이러한 풍습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³⁹⁾ 『명일통지(明一統志)』의 조선국(朝鮮國) 항목에서는 『북사(北史)』 「고구려전(高句麗傳)」의 내용을 인용하여, 남녀가 모여 놀다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결혼했다는 내용을 소주로 부기한 바 있다.⁴⁰⁾ 김윤식은 『명사』의 기록이 와전된 것인데, 서진이 이 정보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본 것이다.

조선의 관리들은 예법에 서툴러서	異國班寮禮法疎
공무 여가에 편을 나눠 쌍륙놀이하네.	分曹雙陸自公餘
아이 시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며	倚兒好莫令人見
상대 집을 빼앗아 상대를 괴롭힌다.	奪作專房惱殺渠(20)

서진은 쌍륙놀이 현장에서 시첩(侍妾)을 빼앗았다고 말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풍속이 없으니 반드시 잘못 전해들은 것이다. 『조야집요(朝野輯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종조(成宗朝)에 재상 이영근(李永根)과 이곤(李坤)이 함께 한 기녀를 가까이 하면서 서로 다투어 빼앗았다. 이에 연관이 이들의 과직을 요청했다. 왕이 연관의 요청을 윤택하지 않으며 ‘사대부가 처첩을 빼앗는 것은 말세의 일이다. 내가 말세의 이러한 일을 차마 두고 볼 수 없다.’라 했다.” 서진이 말한 쌍륙놀이 자리에서 시첩을 빼앗는다고 한 것은 이 일을 전해들은 것이 아니겠는가.⁴¹⁾

서진이 바라본 조선 쌍륙놀이의 현장과 이 작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김윤식의 언급이다. 서진은 “조선은 쌍륙을 즐기는 풍속이 성대한

39) 金允植, 「書徐振竹枝詞後」(『雲養集』권12) “……其自註如男女相悅爲婚云者, 襲明史之誤也, ……”

40) 『明一統志』 권89 「外夷·朝鮮國」 “男女相悅爲婚.[小註: 同上[北史高句麗傳], 俗多遊女, 夜則男女群聚爲戲, 相悅卽婚, 無財聘之禮.”

41) 金允植, 「書徐振竹枝詞後」(『雲養集』권12) “如席上奪姬云者, 吾東自無是俗, 亦必傳聞之譌也. 朝野輯要云成宗朝, 宰相李永根李坤共狎一妓, 相爭奪, 言官請罷. 上不允曰, 士大夫相竊妻妾, 乃衰世事也. 予不忍置斯世於衰世也. 徐振所云席上奪姬, 無乃傳聞此事歟.”

데, 관리들이 모여 놀이를 하면 시첩들이 술상을 들고 나온다. 간혹 시첩을 빼앗아 가더라도 이를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俗盛雙陸之戲, 同官讌集, 出侍妾侑觴, 或奪取以去, 不以爲怪.]”라는 소주를 붙인 바 있다. 이로 보건대 쌍륙놀이는 조선에 만연했던 놀이로, 술과 시첩이 등장하고 심지어 게임을 통해 상대방의 시첩을 빼앗아 가는 부정적인 놀이로 서진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윤식은 서진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쌍륙놀이가 성대하게 행해지기는 했지만, 결코 시첩을 뺏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와전된 정보가 중국에 퍼지게 된 것은 처첩을 빼앗으려 했다는 고려 적의 일화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일례를 언급했다.⁴²⁾ 결국 서진이 언급한 쌍륙놀이에서 행해지는 시첩을 빼앗는 행위는 중국에 잘못 전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다음은 조선의 풍속 관련 백준의 작품을 살펴보겠다.

기와는 들쭉날쭉 가지런하지 않고	瓦縫參差列不齊
대부분 초가집은 깊은 감옥과 같네.	大都草舍似幽陔
나 보다 높은 벼슬아치 부러워하고	羨他仕官加人處
등마무마다 흰 석회 흙 고루 발랐네.	屋脊皆調白堊泥(19)

조선의 초가집을 묘사한 것이다. 당대 청나라는 벽돌을 이용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의 초가집은 초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옥과도 같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조선의 풍속에 대한 백준의 부정적인 인식은 산견된다. 벼슬 하지도 못하면서 허위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조선 선비의 모습을 꼬집어 비판 했으며,⁴³⁾ 주인을 부축하며 힘겹게 말을 끌고 가는 종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조선의 견마(牽馬) 풍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⁴⁴⁾

42) ‘사대부상절처첩(士大夫相竊妻妾)’한 일은 고려 말에 있었던 일로 『성종실록(成宗實錄)』7년, 14년, 17년, 18년 등의 기사에 보인다.

43) 柏棧, 「朝鮮竹枝詞」(13) “不聞牙笏插朝衫, 金玉圓環鬢畔嵌. 帶束烏犀懸挂處, 皮囊中貯是頭銜.”

44) 柏棧, 「朝鮮竹枝詞」(26) “帽扇青紗手自舒, 不勞贈策步徐徐. 馬奴控馬人扶膝, 皮絛

또한 조선에서는 꿀 찌꺼기로 초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촛농이 떨어질 때마다 촛농을 주워 먹는 조선인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⁴⁵⁾ 이것은 조선의 당대 풍속이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이다.

중국 사신의 조선 관련 작품을 통해 당대 조선의 풍속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동월이나 서진의 경우, 당대 풍속을 바라본 시선 뒤에는 『한서』나 『명사』 등 자국에 전해지는 조선 관련 기록이 자리하고 있다. 백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지만, 백준은 문헌의 언급보다는 조선의 실제적인 모습에 관심을 쏟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동월과 서진, 백준이 조선에 사신 온 것은 시간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언급한 조선의 풍속은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예각화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그들이 언급한 조선의 풍속이 중국에 전해오는 전통적인 조선 풍속에 대한 인식인지, 아니면 실상에 대한 언급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다. 실상과 전통적 인식의 혼재로 인해 이들 작품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조선죽지사류의 보이는 조선의 풍속 중 부정적인 측면만을 언급했다. 물론 이 부정적인 시선은 개인적인 인식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와전된 정보에 대한 답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와전된 정보가 쌓이어 전통적인 조선 인식의 틀로 고정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관련 작품 중 당대 풍속과 관련된 작품에 대해서는 당대 풍속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통해 그 실상을 꼼꼼히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칫 당사자도 이방인의 와전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조선에 왔던 중국 사신의 조선 관련 기록을 통해 조선 인

還牽二丈餘.”

45) 柏菱, 「朝鮮竹枝詞」(30) “澆成黃蠟似松膠, 外直中通紙信包. 燭淚堆時爭拾取, 嚼來還道是佳肴.”

식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동월은 1488년, 서진은 18세기 중엽, 백준은 1844년 각각 조선에 사신으로 왔고 조선 사행 체험을 각각 작품으로 남긴 바 있다.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조선을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한서』나 『명사』 그리고 중국에 전해오는 조선관련 전적에 있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에, 중국의 전통적인 조선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자나 소정방, 서불은 조선의 역사 이면서도 중국의 역사가 된다. 특히 기자를 전면에 내세워 조선에 끼친 중국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켰다. 또한 백준은 기사에서 벗어나 중국의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조선의 역사를 상기시켜, 조선의 역사에 끼친 중국의 영향을 확대 강화했다.

다음으로 당대 조선의 정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세 사신 모두 조선이 교화에 무졌었고 예악과 풍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평이 조선만의 노력이 아닌 중국의 지대한 영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논지를 내세웠다.

동월과 서진 및 백준의 조선 풍속 관련 작품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일이나 자유연애, 처첩을 서로 빼앗는 풍속, 감옥같은 초가집 등 이들이 본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진의 작품에 대해서는 김윤식이 꼼꼼히 변증하여, 어느 정도 오인의 실상이 밝혀졌다. 하지만 밝혀진 실상이라는 것이 조선에서만 유효한 것이지, 결코 중국의 전통적인 조선 인식을 바로잡지는 못했을 것이다. 조선 풍속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또한 중국의 전통적인 조선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중국의 전적에 전하는 조선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실제 조선에 온 중국 사신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고 혹은 확대 강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선의 역사나 현 정세 및 풍속에 대한 인식이 그들만의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hoseon in the Works of Chinese Ambassadors

-Focusing on the works of Dong-wol, Seo-Chin, Baek-Chun-

Park, Chonghoon(Chosun University)

I considered a part that chinese envoy understandings of the Chosun through their report about Chosun. Dong-wol came in 1488, Seo-Chin came in the mid-eighteenth century, Baek-Chun came in 1844. Each of they became envoys in Chosun.

Recognition about history of Chosun looked at Chosun in chinese history. GiCha or SoChongbang, Seobul were history of Chosun and chinese history. Specially, they were continuously recollected chinese influence caused in Chosun about claim in front of giCha. They were regard a part of chinese history as history of Cheoseon. and the present Cheoseon also have effect on recognition as it was that one part of Chinese history.

And than, I referred a part about those days the situation of Chosun. Three envoys were good hand at enlightenment of Chosun. and they have cognizance of arranged nation from courtesy, music and refinement. But, such tranquility was urged logic that not only an effort of Choseon but also greatly influence of China within the limits of the possibility. This was displayed heavy Chinese influence which China was admitted that established the nation or It was mentioned an event who TaeChong of Qing.

I thought that be necessary careful examination about a related works of Choseon customs who written Dong-wol and Seo-Chin

and Baek-Chun. At this study, This was focused on that they observe negative part which bathing with man and woman or free love, customs that take one's wife and concubine, monopolization of a ginseng and a thatched cottage like a prison. About Seo-Chin`s works, Kim-yunsik demonstrated closely. So, He was made clear some actual circumstances of misconception. But, It was come clear a real condition that an effective things at Choseon, that was by no means corrected Chinese traditional Choseon cognition. About Dong-wol referred to bathed with man and woman, It was Choseon customs that previously introduced China from Song. When Dong-wol personally came to Choseon by an envoy, he said already such customs evaporated. But, He made reference to a private dimension by what time. Baek-Chun had negative his gaze about customs of Choseon. Moreover it was thick probability by Chinese traditional Choseon cognition.

Key words : Choseon Jukjisa(朝鮮竹枝詞), Dong-wol(董越), Seo-Chin(徐振), Baek-Chun(柏蔭), Chinese envoy, Recognition of Chosun, Kim Yun-sik(金允植)

[참고문헌]

■ 기본자료

金允植, 『雲養集』

『新增東國輿地勝覽』

王慎之·王子今 輯, 『清代海外竹枝詞』, 北京大學出版社, 1994.

殷夢霞·丁浩 選編, 『使朝鮮錄』,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 단행본

윤호진 譯, 『朝鮮賦』, 까치, 1994.

■ 논문 및 기타 자료

구범진, 「19세기 전반 淸人の 朝鮮使行」, 『史林』 22호, 수선사학회, 2004.

박중훈, 「徐振의 「朝鮮竹枝詞」에 보이는 朝鮮 認識」, 『온지논총』 29집, 온지학회, 2011.

박중훈, 「淸 柏俊의 「朝鮮竹枝詞」에 드러난 朝鮮 認識」, 『한국언어문화』 4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박준원, 「清代 朝鮮竹枝詞 研究」, 『경성대학교 논문집』 19집 1권, 경성대학교, 1998. 145-146면

申太永, 「明使 董越의 「朝鮮賦」에 나타난 朝鮮認識」, 『한문학보』 10집, 우리한문학회, 2004.

신하운, 「청대 풍토시에 나타난 조선 사회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학술제』 권14,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2006.

신하운, 「徐振 「朝鮮竹枝詞」에 나타난 淸人の 朝鮮 인식」, 『중국문학』 52집, 한국중국어학회, 2007.

양뢰뢰, 「서진의 조선죽지사에 나타난 실경의 풍격」, 『인문과학논집』 22집, 강남대학교 출판부, 2011.

李翼熙, 「謝靈運 辭賦의 內容에 관한 考察」, 『중국학연구』 17집, 중국학연구회, 1977.

정생화, 「우통의 조선죽지사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48권, 한국한문학회, 2011.